

살인

Mord

1. 어원 및 개념 정의

중고지 독일어 'mort', 고고지독일어 'mord'에서 유래한 '살인 Mord'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살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다. 일반적 용어 개념으로 범죄가 아닌 살해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범행을 방지하거나 경찰 등의 사법기관을 돕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예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다. 형사상의 살인은 법이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개념으로서의 살인이다. 따라서 모든 법체계는 상이한 유형의 살인들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형벌은 살인자의 고의, 행위의 위험성 혹은 행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률적으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 없이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된다.

2. 모티프 유형



<엽기적 살인을 다룬 영화 <향수>의 한 장면>

살인을 그 종류별로 나열하면 몰래 사람을 죽이는 암살, 독을 사용하여 살인하는 독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익살, 총을 사용하여 죽이는 총살, 머리를 베어 죽이는 참수 등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단순히 살인의 도구나 수단에 따른 분류이고, 살인이 모티프로서 문학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그 인과관계와 기능에 관심을 둘 때이다. 모티프로

서 살인에 대한 유형화는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1) 분노에 의한 살인

가장 일반적인 살인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분노다.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살인에 이르게 한다. 뷔히너의 『보이체크』에서 주인공 보이체크는 자신의 애인이 간통을 저지른다는 소식에 자제심을 잃고 그녀를 칼로 찔러 죽인다.

2) 복수에 의한 살인

무협 소설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티프인 복수는 그 결과로 살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니벨룽의 노래』에 등장하는 크립힐트의 복수와 같이 박해를 받았던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복수, 혹은 전쟁에서 패한 공동체나 조국을 위해 대신 복수를 하는 모습은 문학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다.

3) 광기에 의한 살인

살인이 집단적으로, 연쇄적으로, 혹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기에 의한 경우가 많다. 파트릭 쥐스킨트의 작품 『향수』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향수를 만들고자 하는 집착에 아름다운 소녀들을 연쇄 살인하는데, 이 같은 살인은 광기에 의한 것이다.

4) 우연한 살인

까뮈의 작품 『이방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작열하는 뜨거운 태양빛에 살인을 저지른다. 살인의 원인으로 부조리 혹은 매너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외면적으로 보이는 원인은 분명한 이유가 없는 우연이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한 살인이다.

5) 시기심과 오해로 인한 살인

성서에서 카인은 제사문제로 인해 동생을 죽인다. 신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면서 동생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형 카인은 시기심에 빠지고 화를 이기지 못해 동생을 살해한다. 시기심과 질투는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진다. 또한 레싱의 『미스 사라 삼손』에 등장하는 여인 마우드는 옛 애인의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시기심에 살인을 저지른다.

6)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

전쟁에서의 살인, 혹은 상대방의 위협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살인과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으로 형법상으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분노, 복수, 집착, 배신
	우연, 실수
	오해, 시기심
	정당방위
	전쟁
과정	살인의 계획과 실천
	심리적 갈등
	계속된 살인
	광기
결과	죽음
	살인의 성공 / 실패
	체포 / 감옥
	후회 / 체념
	인간성 상실
	은둔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노부인의 방문 Der Besuch der alten Dame』*

작가	프리드리히 뢰렌마트 Friedrich Dürrenmatt(1921-1990)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55
등장인물	클레어 차하나시안: 본명은 클레어 비셔, 옛 사랑에게 버림받아 고향을 떠난 뒤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어 다시 고향을 찾는다. 일: 차하나시안의 옛 애인으로 몰락한 도시 쾰렌의 잠화상 가게 주인 시장: 몰락한 도시 쾰렌의 시장으로 차하나시안 부인의 도움을 받아 시를 살려보려 한다. - 교장, 신부

* 최병준(역): 노부인의 방문, 예니, 1999.

4.1. 내용 요약



<『노부인의 방문』 연극 포스터>

있고, 당시 일의 아기를 가졌던 그녀는 친부 확인 소송을 제기 했지만 일에 매수된 두 증인의 위증으로 패소하였다. 그 결과 그녀는 쾰렌 시를 떠나 창녀로 전락하였고 아이는 죽게 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백만장자와 결혼하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인이 되었고 일도 부잣집 딸과 결혼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차하나시아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쾰렌 시를 도와주는 대신에 일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녀는 이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 도시에 10억 마르크를 기부하면서 45년 전에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정의를 사려고 한다. 그녀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하였던 옛 애인 일을 살해하면 10억 마르크를 내놓겠다고 제의한다.

파산한 쾰렌 시는 노부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한다. 처음에 쾰렌 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지만 시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일의 가게에 지게 된 시민들의 빛이 늘어نا자, 쾰렌 시민들은 일의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결국 살인이 저질러지고 그 살인 행위가 민주적인 절차까지 거쳐 진행된다. 차하나시아안은 일의 시체를 가지고 고향 도시를 떠나고 사람들은 시의 복지와 번영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른다.

미국에서 대부호가 된 고급 창녀인 클레어 차하나시아안은 나이가 들어 고향을 방문한다. 실연의 슬픔을 안고 떠났지만, 지금은 몰락해 가는 고향 쾰렌 시를 30여 년 만에 찾아온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이곳에서 청년 일과 사랑을 나누었으나 배신을 당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녀의 방문 목적은 일의 목숨을 빼앗는 데 있다.

오래 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일의 배신으로 차하나시아안은 실연을 당하게 되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복수에 의한 살인

- 서사구조: 고향을 떠나 대부호가 된 한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부를 이용해 젊었을 때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살인한다.

원인	복수: 자신을 배신한 남자에 대한 복수
과정	살인의 계획과 실천: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듦
결과	살인의 성공: 살인을 통한 복수

5. 작품 목록

작자미상: 『니벨룽의 노래 Das Nibelungenlied』 (연대미상)

쉴러 Friedrich Schiller: 『발렌슈타인 Wallenstein』 (1799)

뷔히너 Georg Büchner: 『보이체크 Woyzeck』 (1836)

쾰스킨트 Patrick Süskind: 『향수 Das Parfum』 (1985)

6. 연계 모티프

감옥, 광기, 독살, 분노, 배신, 시기, 오해, 자살, 전쟁, 정당방위, 죽음, 탈출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배신 + 감옥 + 탈출 + 살인 + 복수
스토리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그를 감옥으로 보낸다. 하지만 친구는 천신만고 끝에 감옥을 탈출하고 이 남자를 찾아와 죽이고 복수한다.